

세계 석유시장 전망



1. 개관

단기적으로 볼때 향후 3년간 세계 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서 수요측면의 세계 경제성장과 공급 측면의 산유국의 정책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향후 세계의 경제성장수준은 석유 수요를 결정지을 것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미미하거나 정

체되어 있으며, 동유럽의 경제는 후퇴하고 있다. 반면, 아·태평양과 중남미 개도국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에너지절약에서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경제 성장과 석유수요간은 무관할수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CIS와 동유럽의 경기후퇴는 에너지소비 특히 석유소비를 위축시켰다. 반면 특히 태평양

지역 개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개도국에게 있어서 에너지절약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83~'92년 기간 동안 OECD의 경제는 28.7% 성장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는 19.6% 증가하였다. 즉 경제가 1% 성장하는 데 에너지 소비는 0.69%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개도국은 경제가 59.9%,

에너지소비가 각각 55.4% 증가하여 1%의 경제성장에 0.93%의 에너지 소비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96년까지 OECD권에서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 1%당 0.5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의 근거로서 환경보호 측면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스트 절감차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 소비형인 정보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도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생활수준 향상 욕구와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응하는 산업생산력의 확대가 정치적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문제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의 전망은 뚜렷이 기대되지 않는다.

2. '96년 에너지 믹스

오는 '96년에 세계 에너지 수요는 금년보다 7.7% 증가할 것이다. OECD와 동유럽에서 5.1%, 개도국에서 14.1% 증가가 전망된다.

OECD에서 수력, 지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수요가 14.8% 가까이 증가하겠으나, 총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2% 포인트 올라간 2.7%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또한 가스는 청정연료로서의 이점을 안고 석탄과 원자력을 대체할 것이다. 석탄수요는 2.5% 증가가 예상되나 비중은 21.8%로부터 21.2%로 낮아질 것이다. 원자력은 3.6%

증가가 예상되나 비중은 10.7%로부터 10.6%로 낮아질 것이다. 반면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중은 65%에서 65.5%로 제고될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석유 외에 석탄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석탄이 주종 연료로서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석탄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개도국의 석탄소비는 14.8% 증가하여 에너지원 중 비중이 39.3%에서 39.5%로 높아질 것이다. 석유소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13.3%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에서 석탄소비가 크게 증가한 관계로 석유의 비중은 43.6%에서 43.3%로 낮아질 것이다. 이밖에 천연가스가 14%, 원자력이 22.1% 증가하여 각각 12.6%와 3%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석유 수요전망

(단위 : 천b/d)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증감 1993~1996	
							물량	증감률(%)
OECD	37,320	37,890	38,193	39,766	39,293	39,859	1,666	4.4
개도국	18,640	19,635	20,510	21,401	22,292	23,238	2,728	13.3
CIS/동유럽	9,220	7,860	6,893	6,514	6,650	6,830	-63	-0.9
계	65,180	65,385	65,596	67,681	68,235	69,927	4,331	6.6

제품별 수요전망(CIS 및 동유럽 제외)

(단위 : 천b/d)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증감 1993~1996	
							물량	증감률(%)
휘발유	17,545	18,142	18,380	18,686	18,970	19,274	894	4.9
중간제품	18,979	19,529	20,010	20,603	21,154	21,733	1,723	8.6
병커유	9,294	9,378	9,550	9,756	9,950	10,157	607	6.4
기타	8,593	9,031	9,290	9,612	9,894	10,203	913	9.8
계	54,411	56,080	57,230	58,657	59,968	61,367	4,137	7.2

<자료> '91, '92 : BP 통계, '93이후 OGI 전망

CIS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키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CIS와 동유럽의 원자력 공급은 36% 증가하여 비중이 4%에서 5.2%로 상승할 것이다. CIS는 석유수출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석유외의 연료의 사용을 권장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의 비중은 23.7%에서 22.3%로 낮아질 것이다. 석탄소비는 5.3% 증가하여 28.2%의 비중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세계 전체적으로 석유는 소비가 6.6% 증가하나 비중은 39.5%로 0.4% 포인트 낮아지고 천연가스는 8.6% 증가하여 비중이 23%로 0.2% 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이로써 석유와 천연가스는 에너지 소비 중 62.5%를 차지하여 비중이 0.2% 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석탄소비는 주로 중국의 증가에 기인하여 8% 증가하여 28% 비중을 유지할 것이다. 원자력은 CIS,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극동지역에서의 신규 건설에 기인하여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석유수요

'96년까지 세계 석유소비는 6.6% 증가하여 69.9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량으로서는 '93년 대비 4.3백만b/d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중 개도국이 2.7백만b/d, OECD가 1.7백만b/d 각각 증가하는 반면 동유럽에서 0.1백만b/d의 감소를 보일 것이다.

CIS를 비롯한 동유럽의 석유소비

는 '94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한 후 '95년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96년에도 '93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초기에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석유소비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에 기인하여 소비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OECD에서는 탈석유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가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특히 수송용 연료에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저렴한 대체에너지의 실용화가 기대되지 않는다. 이로써 전망기간 동안 커다란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개도국에게 있어서는 에너지 선택의 폭이 훨씬 좁다. 그 중 석유는 가장 코스트가 낮은 에너지원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동력원으로서 적합하다. 특히 다른 연료에 비해 수송 코스트가 낮아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신흥공업국들에게 중요한 연료이다.

제품별로는 수송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중간제품의 소비가 OECD 및 개도국에서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에 있어서 고속도로 화물운송은 경제개발에 필수적 요소인 관계로 경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휘발유 수요는 4.9% 증가한 19.3백만b/d에 달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대수증가와 운행거리 증가가 예상되지만, 연료효율개선에 의해 일부분 상쇄될 것이다.

병커유 수요는 6.4% 증가하여 10.2백만b/d에 달할 것이다. 해상운송과 산업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용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발전용 연료에 있어서 탈석유화가 이루어졌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전력수요 증가를 석유화력 발전으로 대처하는 것 외에 별로 다른 대안이 없다.

나프타, 윤활유, 아스팔트 등 기타 제품의 수요는 9.8% 증가할 것이다.

4. 정제능력

세계 정제능력은 80년대초 석유수요 침체에 따라 '82년의 78.5백만b/d에서 '85년에 73백만b/d로 감소한 후 '91년에는 75.6백만b/d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92년에는 CIS의 2.2백만b/d에 달하는 노후시설 폐쇄에 기인하여 74백만b/d로 감소하였다. 이로써 10년전의 정제능력보다 4.5백만b/d(5.7%)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OECD 및 개도국의 정제시설 가동율은 '83년 68.4%에서 '92년에 87.3%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OECD는 정제능력이 36.7백만b/d로 6.9백만b/d 감소한 데 비해 개도국의 경우 24.5백만b/d로 3.7백만b/d 증가하였다.

향후 '96년까지 세계 정제능력은 약 75백만b/d로 0.9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제능력 증가는 수요증가에 못미치는 것으로서 따라서 가동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동안 원유 생산량은 4백만b/d 증가가 예상되어

정제시설의 가동율이 '93년의 85.1%에서 89.5%로 높아질 것이다.

정기적 유지보수 및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동율은 90%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추가 정제시설 건설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규제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개도국에서 신규시설 건설이 예상된다.

5. 유가전망

지난 '91년 1월의 걸프위기 이후 세계 원유수출 평균가격은 '91년 배

럴당 17.80달러, '92년 배럴당 17.95달러로 안정 또는 약세를 보였다.

'93년에는 OPEC의 갈등과 수요침체에 기인하여 상반기 중 배럴당 16.95달러로 하락하였다.

'93년 평균 수출가격은 배럴당 16.80달러로 전망된다. 9월에 합의된 쿼터가 준수된다면 연말에 유가가 상승하겠지만, 연초의 가격하락 폭을 보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94년에는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하여 유가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생산증가에 비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배럴당 17.60달러에 달할 것이다.

'95년에도 수요증가에 따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은 신규 유전개발을 촉진시키게 되고 생산증가가 수요증가를 초과하게 될 것이며, 연말 경 이라크의 시장참여에 의해 OPEC의 초과 생산능력은 1백만b/d 증가하게 되어 유가의 추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평균 유가는 18.25달러로 예상된다.

'96년에는 이라크의 시장참여 효과로 시장은 약세로 돌아서서 배럴당 17.85달러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OGJ, '93. 10>

세계 정제능력 추이 및 전망

<추이>

(단위 : 천b/d)

	1982	1987	1992	증감 1982 ~ 1992	
				물량	증감율 (%)
정제능력					
미국·캐나다	19,120	17,785	17,185	-1,935	-10.1
중남미	8,330	7,245	7,615	-715	-8.6
OECD(유럽)	18,140	14,555	14,000	-4,140	-22.8
CIS·동유럽	14,185	14,820	12,855	-1,330	-9.4
중동	3,565	4,150	4,915	+1,350	+37.9
아프리카	2,355	2,630	2,925	+570	+24.2
아시아·태평양지역	12,825	12,395	14,520	+1,695	+13.2
세계 합	78,520	73,580	74,015	-4,505	-5.7
원유정제					
세계 합	55,365	57,865	61,870	+6,505	+11.7
가동률	70.5	78.6	83.6	-	

<자료> BP 통계

<전망>

(단위 : 천b/d)

	1992	1993	1994	1995	1996
정제능력	74,015	74,100	74,200	74,300	75,000
원유정제	61,870	63,095	64,135	65,670	67,110
가동률	83.6	85.1	86.4	88.4	89.5

<자료> OGJ